

그린산업

11월 5일, 트럼프 리스크 피크 아웃

그린산업 포인트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그린산업 관련주 약세 과도하게 반영. 4년의 집권으로 그린산업의 대세 무너뜨리기 어렵고, 2년후 중간선거 기점으로 트럼프 정책 영향력 극적으로 낮아질 가능성 높아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 트럼프 우세 여론 조사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그린산업 관련주가 약세 두드러져
- 트럼프 1기에 비하면 이번 대선 리스크 강도는 현저히 낮아, 익히 알려진 우려가 길어야 4년 지속될 수 있기 때문
- 2016년 선거에는 힐러리에 대한 기대로 그린산업주 급등했기 때문에 선거 후 단기 급락한 것
- 트럼프 1기 집권 직후 테슬라, Vestas 등 그린산업 관련주가 단기간에 회복. 2019년부터 주가 급등세 시현
- 1994년 이후 대선 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하원 다수당 차지한 경우는 2002년뿐. 당시는 9·11 여파에 따른 테러 와의 전쟁으로 집권당 중심으로 결집하는 분위기 팽배
- 트럼프 당선되어도 2026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에게 넘어갈 가능성 높아. 정책 리스크 피크 아웃
-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그린산업 성장은 글로벌 트렌드. 관련주 매도 자제 권고

1994년~2022년 하원의원 선거 결과, 9·11 여파로 인한 2002 제외하고 대선 후 중간 선거 모두 야당이 하원 다수당 차지

President	Election Year	Democrats		Republicans		비고
		Seats	Change	Seats	Change	
빌 클린턴	1994	204	-54	230	+54	
	1996	207	+3	226	-4	
	1998	211	+4	223	-3	
	2000	212	+1	221	-2	
조지 W. 부시	2002	205	-7	229	+8	9·11 테러 발생 (2001.09.11)
	2004	201	-4	233	+4	
	2006	233	+32	202	-31	
	2008	257	+24	178	-24	
버락 오바마	2010	193	-64	242	+64	
	2012	201	+8	234	-8	
	2014	188	-13	247	+13	
	2016	194	+6	241	-6	
도널드 트럼프	2018	235	+41	199	-42	
	2020	222	-13	213	+14	
조 바이든	2022	213	-9	222	+9	

자료: USA.gov, 유진투자증권
주) 중간선거가 치러진 연도 음영으로 표시

**트럼프 리스크에 그린산업
관련주 약세 지속**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늘어나면서 그린산업 관련주들의 주가가 약세로 전환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표적이다. 화석연료와 내연기관차 중심의 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선뿐 아니라 상, 하원 선거까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상태이다. 하지만 당사는 이러한 우려가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과도한 우려, 트럼프 영향력
길게 가지 않아**

트럼프가 IRA 를 무력화 시킨다면 그린산업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전부터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집단반대가 공식화된 바 있어서, 반대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994년 대선 후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경우는 2002년 1번뿐이다. 2001년 발생한 911 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과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집권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정서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최근 공화당 하원의원들 18명이 공식 문서를 통해 IRA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힌 이유도 자신들의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2026년 하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견제의 논리가 지난 30년간 작용해왔다. 4년간의 통치기간 중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의 위치를 뺏긴다면 트럼프가 입법 절차를 통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없다.

**2016년과 다른 국면, 그린산업
관련주 매도 자제해야**

2016년에는 선거 전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서 그린산업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했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니 선거 후 그린산업 관련주들의 주가가 단기 급락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초기 그린산업 관련주들의 주가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금리하락기로 들어가는 2019년부터는 큰 폭의 주가상승이 본격화되었다. 2024년인 현재 상황은 2016년과 전혀 다르다. 트럼프 당선을 가정해 그린산업 관련주들의 주가가 미리 하락한 상태이고, 트럼프는 길어야 4년, 정책적으로는 2년만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은 글로벌 트렌드인데, 기업들이 이를 어기고 트럼프에 동조할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 공화당에서 또 나올 수 있을까? 트럼프 리스크는 11월 5일 피크아웃할 것이다.

도표 1. 트럼프 발작은 일시적, 이후 테슬라 주가 정상화



도표 2. Vestas 주가의 선행지표는 풍력설치량



도표 3. 힐러리 vs 트럼프 당시 타임라인과 Vestas, Tesla 주가

일시		Vestas 주가 (DKK)	Tesla 주가 (USD)	비고
2015년	01월 01일	45.3	44.5	힐러리 대선후보 사실상 확정
2016년	11월 07일	103.7	38.1	힐러리 효과(대선일 11/8)
	12월 09일	79.4	38.5	트럼프발작
2017년	02월 15일	103.8	56.2	트럼프발작 회복
	05월 26일	125.4	63.4	주가 정상화
2020년	11월 03일	222.8	400.5	트럼프 임기 마지막날 주가(대선일 11/3)

자료: 언론종합,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4.09.30 기준)